



전국사격대회 나누서 '탕'

전남도지사배 전국 공기총 사격대회가 19일 나주종합사격장에서 개막했다. 전국 57개팀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한발 한발에 희비가 엇갈리는 숨겨진 접전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 공기총10m 여대부 결승에서 사로에 선 선수들이 타격을 겨냥하고 있다. /나주=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허정무호, 유럽팀 공략 자신감 쌓았다

오범석 등 활약 '가상 그리스' 핀란드 2대0 격파... 22일 라트비아와 평가전

“풀 전력으로 나서면 그리스와도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스튜어트 맥스터 핀란드 축구대표팀 감독) “한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팀이었다.”(핀란드 축구대표 이리 리트마넨)  
 축구대표팀이 18일 밤(한국시간) 치른 핀란드와 친선경기는 2-0 승리라는 결과는 물론 유럽 팀 공략을 위한 자신감을 쌓는 기회였다. 이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2004 유럽선수권대회 챔피언인 그리스와 1차전을 벌인다. 그리스와 경기는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한국이 핀란드와 경기에 이어 22일 라트비아와 평가전을 치르는 것도 그리스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전선의 마지막 평가전 상대 라트비아는 그리스와 남아공월드컵 유럽예선에서도 맞붙었던 팀이다. 허정무 감독은 이날 핀란드와 경기 후 “선수들에게 경기 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핀란드 선수들의 폼 상태도 썩 좋지 않았지만 유럽 팀의 빠른 크로스과 몸싸움에 많이 적응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상대 배후를 노린 빠른 패스와 방향 전환 패스 등이 좋았다”고 경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핀란드는 이번 경기에 한국 나이 따윈 베테랑 아리 리트마넨 등이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지만, 유럽 리그에서 뛰는 주축들이 많이 빠져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 대표팀도 마찬가지였다.  
 허정무호 출범 이후 대표팀이 유럽팀을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덴마크 예스비에르스 치른 덴마크와 친선경기에서 0-0으로 비겼고, 이어 영국 런던에서 벌인 세르비아와 평가전에서는 0-1로 졌다.  
 대륙전사들은 핀란드와 경기에서 유럽 팀과 상대할 만하다는 자신감을 쌓았다.  
 지난해 8월 대표팀 복귀 후 처음으로 A매치에서 풀타임을 뽐낸 스트라이커 이동국(전북)은 “유럽 팀과 부딪쳐 보니 크게 밀린다는 인상은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대 핀란드도 완패를 인정했다.  
 잉글랜드 출신 맥스터 감독은 “한국이 경기 중 전형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 풀 전력으로 나서면 그리스와도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맥스터 감독은 이동국의 공중볼 다름과 김정우의 경기 조절 능력을 높이 샀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남부 말라가의 에스 타디오 시우다드 데 말라가에서 열린 핀란드와 친선경기에서 오범석의 선제골과 이정수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냈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두 차례 A매치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핀란드와 역대 상대전적에서 3전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세르비아전 0-1 패배와 지난 10일 잠비아전 2-4 참패를 당했지만 이날 승리로 A매치 2연패 사슬을 끊었다.  
 한국은 또 지난 2007년 12월 허정무 감독 취임 후 A매치 31경기에서 15승13무9패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오범석이 선취골을 넣은 후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 여수여고·장성 삼계중 공기총 사격 단체전 금

동아여중 정다는 개인전 우승

여수여고와 장성삼계중이 전국 최고의 사격팀으로 자리잡았으며 정다는(동아여중)은 여중부 명사수에 등극했다.  
 여수여고는 19일 나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전남도지사배 전국 공기총사격대회 여고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윤단비·김지혜·남현수·한보미가 출전해 1천182점을 기록, 전남여고(1천153점)를 가볍게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삼계중은 고은·김진아·정슬아·박현주가 1천104점을 쏘 총남 서산여중(1천85점)·대전 용운중(1천84점)을 따돌리고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여중부 공기권총 개인전에선 정다는이 375점을 맞춰 김동희(용운중·374점)를 1점차로 제치고 합계게 우승의 기쁨을 누렸으며 고은은 372점으로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남중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선 고은석·김준만·추동원이 출전한 장성 삼계중이 1천641점으로 대전 대신중(1천642점)에 1점차로 뒤진채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으며, 순천 함림중은 1천638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고은석은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도 569점으로 2위를 차지, 이번 대회에서 2개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여대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선 동산대가 1천161점으로 한국체대(1천178점)에 이어 시상대에 두번째로 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FIFA '앙리 핸드볼' 징계 안한다

월드컵축구 본선 진출을 '손'으로 일궈내 손가락질을 받아온 프랑스 축구대표팀 간판 스타 티에리 앙리(34·바르셀로나)가 출전정지를 피하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심판이 포착하지 못한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앙리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FIFA 집행위원회는 앙리의 '핸드볼 반칙' 사건을 조사해 가능한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사건을 지난달 3일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앙리는 작년 11월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일랜드와 최종예선 2차전에서 0-1로 뒤지던 연장 13분 날아오는 공을 왼손으로 트래킹한 뒤 골문 바로 앞에 있던 윌리엄 갈라르에게 패스해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줬다.  
 불이 앙리의 손에 분명히 닿았지만 골을 인정한 심판은 아일랜드 선수들의 거센 항의에도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본선 출전권은 아일랜드 대신 프랑스에 돌아갔다.  
 앙리는 전 세계 축구팬들이 반칙임을 한눈에 알아봤음에도 걸연쩍은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골을 자축하는 세리머니를 벌였다. 앙리는 나중에 모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자 '심판은 경기의 일부'라는 취지의 항변으로 일관했다.  
 앙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활약이 부각되면 팬들에게서 도덕적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허감독 “선수들 몸싸움 적응, 칭찬 받을만 하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19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말라가에서 끝난 핀란드와 친선경기에서 2-0으로 이긴 뒤 결과에 만족스러워 했다.  
 허정무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안 좋았다. 경기장에 익숙지 않아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 “하지만 이후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 지금까지 훈련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칭찬받을만한 경기였다”고 밝혔다.  
 이번 핀란드와 경기를 비롯해 22일 같은 장소에서 치른 라트비아와 평가전은 한국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서 싸울 그리스를 겨냥해 준비한 모의고사다.  
 허 감독은 “선수들에게도 경기 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핀란드와 그리스, 어느 팀이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 핀란드 선수들의 폼 상태도 썩 좋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유럽 팀의 빠른 크로스과 몸싸움에 많이 적응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상대 배

후를 노린 빠른 패스와 방향 전환 패스 등이 좋았다”고 경기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팀은 4-4-2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김보경(홍익대)이 전반 36분 만에 김두현(수원)으로 교체되면서 변화가 있었다. 이동국(전북)과 투톱으로 나선던 염기훈(울산)을 왼쪽 미드필더로 옮겼고, 김두현이 처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임무를 맡았다.  
 허 감독은 “(20세 이하 청소년대표 출신) 김보경이 성인 무대에서 유럽의 체력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다 보니 힘이 부치는 듯해서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대표팀 복귀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뽐낸 스트라이커 이동국에 대해서는 “오늘 이상으로 해줘야 한다. 마지막에는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 90분 풀타임을 뭉개려야 한다. 적극성이나 수비 가담은 칭찬할 만했다. 나쁘지 않았다”며 모처럼 만족해했다. /연합뉴스

기간 2009.12.26~2010.02.28

100% 특가여행 (주)우동관광여행사 전화 : 062-383-9042

<b>제주여행</b> 제주 3박 4일 여행 20% 할인	<b>제주여행</b> 제주 4박 5일 여행 20% 할인	<b>제주여행</b> 제주 5박 6일 여행 20% 할인
<b>제주여행</b> 제주 6박 7일 여행 20% 할인	<b>제주여행</b> 제주 7박 8일 여행 20% 할인	<b>제주여행</b> 제주 8박 9일 여행 20% 할인

www.jejuweb.com 제주관광지 검색 및 예약